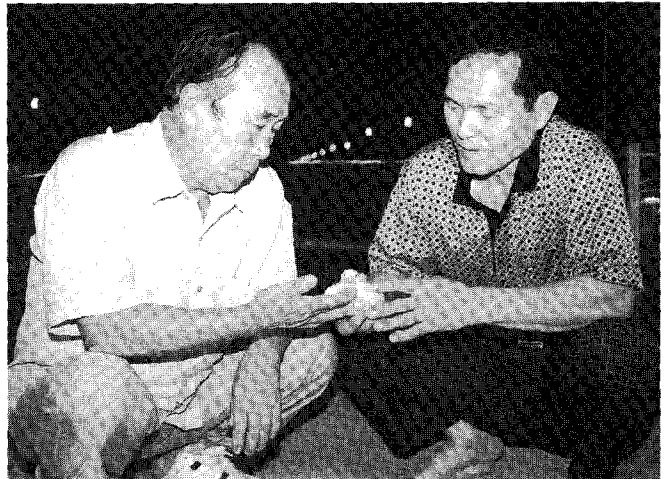


## 폭설피해를 계기로 다시 일어서는 부여육계지부

- 전문 육계인 발굴, 서로간의 정보통해 전 회원의 경쟁력 향상 -

지난 5월 31일 부여에서 육계를 경영하는 농가 50여명이 양계협회 부여지부(지부장 송태희)를 결성, 발기인 대회를 갖고 공식(6/30 협회 이사회 통과) 활동에 들어갔다.

부여군의 육계 생산량은 충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약 430만수를 자랑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, 전국에서도 수위에 들 정도로 육계 집산지로 발돋움하였다. 3만수 이상의 육계를 생산하는 농가만 해도 100호가 넘는다.



회원농가의 소득 향상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(송태희 지부장(좌)과 박종성 부지부장(우)이 병아리 품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.)

### 폭설피해, 그 이후

부여지역 육계인들은 그 동안 축협산하 양계축산계의 일원으로 모임체를 형성하면서 정보교환을 해 왔으나 육계인들을 대변하는 구심체역할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. 지부결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 3월 4~5일 10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피해 이후 많은 양계인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터이다.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로 가격이 하락하여 출하에 애를 먹은 이후 닥친 폭설피해는 부여지역의 육계인들의 의욕마저 앓아가 버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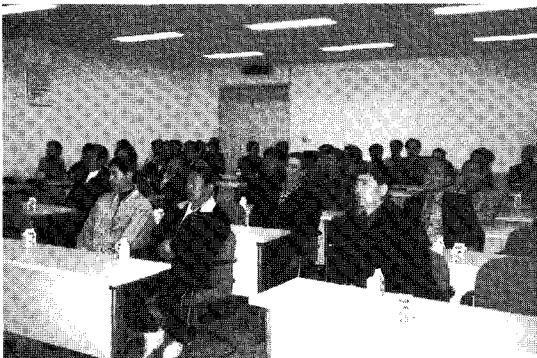
당시 부여지역에서는 37개 농가가 폭설피해를 입었으며, 무허가 축사는 후지원에 따른 자금마련의 어려움으로 복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, 5개 농가는 축사면적이 2,700㎡이상인 관계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폭설피해를 입은 전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시·군에서 조례규정을 두어서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. 정부가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이유로 자금을 무한정 지원하여 전업농을 육성해 놓고 정부의 정책을 따른 전업 농가들에게는 지원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송 지부장의 주장이다.

## 지부를 중심으로 회원 권익보호에 앞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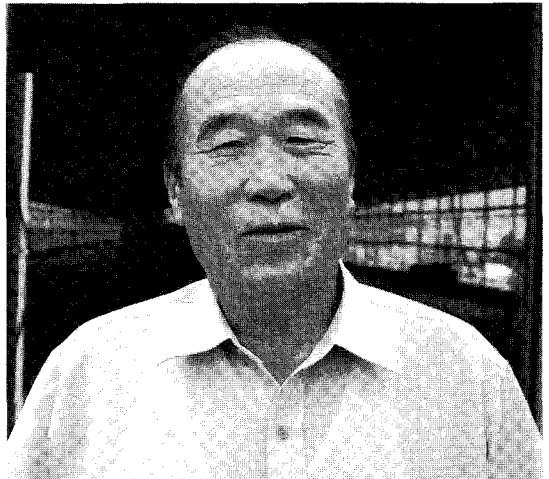
부여육계지부 송태희 지부장은 1978년 양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25년동안 부여지역의 양계업을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. 송 지부장도 이번 폭설로 6만수 규모의 3개동을 잃었다. 다행히 복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시설복구가 진행중에 있다.

부여지부는 송태희 지부장을 필두로 박종성 부지부장, 서종숙 총무, 박승순 재무 등 임원들이 지역 육계인들을 대변하여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.

송태희 지부장은 현재 50여 농가들로서는 부여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보고 최소한 2/3이상의 양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. 송 지부장은 부여지역의 양계인들이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목표아래 회원 가운데 환기, 사양관리, 질병 관리 등 각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우수인을 발굴하여 월례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모임으로 이끌어 갈 계획을 갖고 있다. 지부결성 이후 변변치 않은 사무실도 갖추지 못한 채 시작을 하였으나 차후 사무실 마련, 계근소 설치·운영 등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계획이다.



지난 5월 31일 부여축협에서 가진 지부 발대식 모습



지부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송태희 지부장

## 머슴으로 전략한 육계인, 협의체 기구 절실

“육계인들은 이제 계열사의 머슴으로 전략하였습니다. 10년전보다 사료비, 연료비, 인건비 등 생산비 요인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, 오히려 사육수수료는 내려갔으며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병아리를 받지 못할까봐 계열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머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? 육계생산자를 대변할 수 있는 순수한 생산자 협의기구가 절실합니다. 이 모든 것을 양계협회에서 주도해야하지 않을까요?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생산 기반이 없는 육계산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?”라고 현 육계계열화에 따른 당면문제를 지적하였다.

또한 송지부장은 육계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약사육시 절대평가제보다 상대평가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. 상대평가제는 병아리와 사료가 좋아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닭고기가 생산될 경우 계열업체는 물론 사양가가 함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닭고기 질을 전체적으로 높여 외국 양계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 (정리 | 김동진 차장 dj@poultry.or.kr) **양계**